

2017. 4. 19.(수)

제 355 회 임 시 회

5 분 자 유 발 언

「산업경제위원회 먼저 해체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하라!」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김 인 수 의 원

더불어 민주당 보은 출신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시종 도지사의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 등 경제실정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원인과 배경을 밝히기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조상대상 범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경자청 사업에 대한 조사와 민선 5기와 민선 6기 산단 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 각종 개발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사범위에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주 에코폴리스는 도나 국가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민간 기업체가 분양해서 투자수익을 내야 하는데 개발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충청북도가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충청북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사특위 범위에 민선5~6기 산업단지조성과 투자유치 실적, 지원금 등을 포함시켰는데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하는 투자유치 업무는

다른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투자정보를 선점하고 우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며, 필요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을 설득하여 우리도로 유치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은 창의성과 열정을 갖고 기업유치를 위해 수 없이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들은 중복으로 이전을 결정한 뒤에도 부분 또는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적 특성으로 투자유치 실적은 도 및 시군과 협업의 결과물인데 이 부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도와 시군의 기밀을 경쟁 자치단체에게 공개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조사특위가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이 원칙을 허무는 행위이며,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이번 특위의 조사 범위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을 살펴본다는 목적을 앞세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통상국과 바이오환경국 소관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실적, 입주지원금 등 각종 개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에코폴리스 무산 등 특정사안 이외에 산업단지 및 투자유치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은 의회 구성의 대원칙과 지방자치법을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충주지역 문제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특위는 충주 에코폴리스사업 포기에 따라 67만평 개발 문제를 조사하면 될 것인데 도내 전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도민들 어느 누구나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에코폴리스나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관련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주민 피해가 있는지, 대안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도의회가 당연히 하여야하고 동의합니다만, 이를 확대해 충북 전체 산업단지와 투자유치까지 6개월에 걸쳐 조사하는 것은 해당 부서를 마비시키고 결국은 기업과 도민에게까지 불이익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특위는 모든 투자기업의 투자내역, 일부 기업의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활동을 저해시키고 경제계 전반에 충북에 대한 반기업 이미지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투자유치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에 집중하느라 투자정보 발굴 및 대응력이 저하될 것이고 이는 조사 이후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열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조사특위가 활동할 경우 시군의 투자유치 활동까지 위축시킬 위험성이 높고 결국 경쟁관계인 타 시도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우려한 것처럼 조사특위가 진행된다면 각 시군도 이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도내 전 시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사전 정보가 누출될 경우 인근 경쟁 자치단체의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충북도와 일선 시군의 공무원들이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조사특위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사특위에는 에코폴리스 등 특정 사안에만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기존 제출된 대로 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 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까지 확대 조사하는 것은 충북 경제와 도민 행복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